

착지 '흔들'... 아쉽다 2연패

도마 양학선, 리세광 앞질렀지만 홍콩에 0.016점 차 뒤져 '銀'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이 아시안게임 도마 2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양학선은 25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4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남자 도마 결승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기술인 ‘양학선’을 시도했지만 착지가 흔들리며 1.2차 시기 평균 15.200점을 받았다. 양학선은 1차 시기 15.000점, 2차 시기 15.400점을 받았다. 두 점수의 평균을 매긴 점수에서 15.200을 기록한 양학선은 14.799점의 리세광(29·북한)을 앞질렀다. 그러나 15.216점을 기록한 셰크 와이형(홍콩)에 뒤져 금메달 수확에 실패했다.

‘광주의 검객’ 최은숙(28·광주 서구청)은 또 다시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최은숙은 신아람(28·계룡시청), 최인정(24·계룡시청), 김명선(25·강원도청)과 함께 여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 나서 중국에 19-43으로 졌다. 최은숙은 광주 화정남초·효광중·전남여고·남부대를 나온 광주의 딸로, 무릎 부상을 입고 ‘금빛 찌르기’에 나섰다. 2006 도하아시안게임 은메달, 2012 런던올림픽 은메달 등 2위의 실력을 떨기 위해 절치부심했지만,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끝내 만리장성을 넘지 못했다.

순천 출신 총집이 김준홍(24·KB국민은행)이 금메달 2개에 이어 은메달 2개를 더했다. 김준홍은 이날 인천 육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25m 스탠드 권총 개인전에서 507점을 쏘아 중국의 덩펑(577점)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준홍은 장대규(38·KB국민은행), 강민수(22·부산시청)와 함께 나간 단체전에서도 1707점을 쏘아 중국(1710점)에 이어 은메달을 수확했다. 김준홍과 함께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만행’ 장대규도 은메달 1개를 더 걸었다. 장대규는 565점을 기록해 9위에 올랐다. 이보나(한화갤러리아)는 금메달리스트 김미

진(34·제천시청), 손해경(제천시청)과 함께 나간 단체전에서 314점으로 중국(315점)에 1점차로 뒤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나주 출신 나아름(24·삼영사)은 개인 첫 메달을 품에 안았다. 나아름은 이날 인천국제비올로롬에서 열린 사이클 여자 유니엄 경기의 마지막 종목인 25km 포인트레이스에서 32점을 받고 최종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첫 개인 메달이다. 앞서 지난 22일 손희정(27·대구체육회), 이만혜(29·경남체육회), 김유리(27·상주시청)와 함께 여자 단체주발에서 은메달을 땀다. 한편, 한국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금메달 28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29개로 중국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양학선(22·한국체대)이 25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남자 도마 결승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인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기는 인천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어제 밤 광주에 있는 지인에게서 ‘카톡’ 한 통을 받았다. “인천이 엉망이었는데... 그렇게 심해요?”라는. 사실 엉망이다. 부끄러울 정도다. 일부에선 국제적 망신이라고 혹평한다. 인천아시안게임의 흥성과 안녕을 상징하는 성화가 이를 만어 센서 고장으로 불이 꺼지는가 하면, 배드민턴 경기장에선 정전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수촌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선수들이 2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다. ‘IT 강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대회 운영은 어떤가. 늦은 밤 셔틀버스가 운행을 멈춰 길을 모르

는 외신기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통역요원들은 보수가 적다며 100여명이 집단으로 그만뒀다. 식중독균 검출로 도시락 배달이 중단돼 늦게까지 점심을 못 먹은 선수들도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경기 관람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심지어 야구장에서는 훈련 볼을 함부로 가져다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비치발리볼장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은 카드게임을 하고, 카바디 운영 자원요원들은 화투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됐다. 일부 자원봉사들은 일본 관중을 ‘×××’라고 놀려 구설수를 일으키기도 했다. 낮 뜨거운 일들이다. 차마 국제대회라고 부

통역 사퇴·자원봉사자 도박...국제 망신 광주U대회, 장·단점 파악 철저대비해야

르기도 망망하다. 일각에선 초등학교 체육대회도 이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비아냥이다. 시민의식도 실종됐다. 평소 8만원 선이던 숙박비가 16만원으로 뛰었고, 길을 물어라치면 미리 손사래친다. 안내를 맡은 자원봉사자마저도 길을 물어보면 갈팡질팡이다. 하지만 광주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보약이다. 내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해야 할 광주는 ‘미래엔 안 된다’는 확실한 자각을 주기 때문이다. 인천이 반면교사인 셈이다. 현재 인천아시안게임에는 광주U대회를 준비하는 요원 50명이 파견돼 있다. 종합상황실을 비롯해 각종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센터,

자원봉사자 관리 등 대회 시작 전부터 현장에서 뛰고 있다. 이들에게는 인천아시안게임이 광주U대회를 점검하기 위해 치르는 프레드레이션 쇼이다. 이들의 경험과 헌신이 광주U대회 성공 열쇠가 될 터다. 종합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인 기창용 씨는 “머릿속으로만 개·폐회식 등 상황을 그렸는데 실제 와보니 다른 게 많았다.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 씨는 대회 운영 미숙에 대해 “언론에 못매를 맞는 게 안타깝다”며 “하지만 경기 관리·TV 중계 등 잘하는 것도 많은데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강점은 적극 홍보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주현정 대신 이특영 나선다

女 양궁...어깨 통증으로 출전 포기

“현정이 언니를 위해서라도 꼭 금메달을 따야죠.” 한국 여자 양궁 ‘금빛 명종’의 특명이 이특영(25·광주시청)에게 내려졌다. 대표팀의 만인니이자 초·중·고교 선배인 주현정(32·현대모비스)이 본선 출전권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주현정은 25일 “만신창이가 된 어깨로 사력을 다해 선발전을 완주했다. 바늘구멍을 뚫고 아시안게임 단체전 출전권까지 따냈으나 동료의 격정스러운 시선을 외면하기 어려웠다”며 본선 출전 포기 이유를 밝혔다. 주현정은 오른쪽 어깨 뒷부분의 근육(회전근)이 부분적으로 파열돼 약물·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시위를 당겨왔다. 최근 통증은 머리를 제대로 감지 못할 만큼, 집에서 아기를 안아줄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올림픽보다 경정이 치열하다는 대표 선발전을 강행했다. 마지막 단계인 아시안게임 예선라운드에서는 통증 때문에 시위를 제대로 당기지 못했다. 50m 경기 때는 갑자기 통증이 급습해 화살 한 발을 과녁에 꽂지 못하고 0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결국 예선라운드를 세계 정상급 선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성적인 13위로 마쳤다. 그러나 그는 그간의 선전으로 쌓은 선

발전 점수 덕분에 종합배점에서 국가대표 4명 가운데 3위를 차지해 단체 출전권을 얻었다. 전날 성적이 더 좋았던 이특영이 본선 진출에 탈락한 이유다. 본선행 티켓을 쥔 주현정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어깨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대표팀 주장인 그는 전날 숙소에서 이특영, 정다소미(현대백화점), 장혜진(LH)을 불러모아 “출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안은 울음바다가 됐다. 주현정은 1년 넘게 죽을 힘을 다해 출전권을 쥐었는데 후배들이 나 때문에 불안해지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의 영예도 종지만 한국 여자 양궁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한 결단이었다. “후배들에겐 부담 줄까봐 이야기를 안 했지만 특영이가 잘 해서 꼭 금메달을 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 선택이 틀리지 않고, 후회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주현정의 스승인 박채순 광주시청 양궁 감독은 “자신의 어깨 때문에 한국 여자 양궁을 망칠 수 없다며 특영이가 끈다 선이 좋고 성적도 좋으니 특영이를 내보내자고 현정이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며 “1년 넘게 고생했는데 현정이가 안스럽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



스포츠로 뜨거운 인천

25일 인천 송도글로벌대배치비치발리볼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비치발리볼 16강전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 경기에서 한국 윤혜숙이 리시브하고 있다. /인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아시안게임 (26일·금)

- ▲볼링 = 이영승(한체대) 여자 2인조(9시·안양호계체육관)
- ▲승마 = 방시레(렛츠런승마단) 여자종합마술(13시·드림파크승마단)
- ▲체조 = 이민우(전남체고)남자 트램폴린(15시·남동체육관)
- ▲축구 = 여자 8강전 한국-대만(20시·문학경기장) 남자 16강전(14시·인천축구전용경기장·화성종합경기타운)
- ▲핸드볼 = 남자 본선(14시·선학핸드볼경기장)
- ▲하키 = 여자 예선 한국-홍콩(19시·선학하키경기장)
- ▲배구 = 여자 플레이오프(15시·안산 상록수체육관)

육상 ‘광저우 기적’ 다시한번...내일 첫 출전

‘광저우 기적’의 재현을 노리는 한국 육상 400m 계주는 이번 대회 금메달 기대 종목 중 하나다. 김국영은 내친김에 남자 장의 트랙과 필드에 나선다. 한국 육상은 세계 육상의 변방으로 불리는 아시아권에서도 강호로 꼽히지는 않는 전력이다. 선두주자는 단연 한국 단거리의 간판 김국영(안양시청)이다. 그가 이끄는 남자

400m 계주는 이번 대회 금메달 기대 종목 중 하나다. 김국영은 내친김에 남자 장의 트랙과 필드에 나선다. 한국 육상은 세계 육상의 변방으로 불리는 아시아권에서도 강호로 꼽히지는 않는 전력이다. 선두주자는 단연 한국 단거리의 간판 김국영(안양시청)이다. 그가 이끄는 남자